



도난 당한 후 미국 경매에까지 출품됐다 돌아온 '동약당재인대선사진영'의 환수 공개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진영에 합장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도난불화 '재인선사진영' 돌아오다

21일 환수공개식 거행
美경매과정서 발견해
기증형태로 되돌려받아

중단-문화재청 협력 성과
국외소재문화재 환수까지
범위확대 강화한 협약 체결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협력해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도난 불화인 '동약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을 환수했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환수 공개식을 가졌다.

동약당재인대선사진영(비단 채색, 97cm×65cm)은 18세기에 활동했던 스님인 '동약당재인대선사(생몰년 미상)'를 그린 초상화로 순천 선암사 진영각(仙巖寺眞影閣)에 보관돼 있었다. 선암사 측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진영에는 불화에 대

한 정보를 기록한 화기가 남아 있지 않지만,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건륭 3년 계해2월○일(乾隆三年癸亥二月○日)'이라고 기재돼 있어 제작연대(1738년)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진영으로 평가된다. 건륭은 청나라 고종 건륭제의 연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미국인 A씨가 경매에 이 성보를 출품한 사실을 파악했고,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통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임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경매소에 도난 문화재임을 통보했고 즉각 경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이 진영을 소유하고 있던 미국인 A씨와 2개월간 협상 끝에 기증 형태로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관계자는 "돈을 지불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고 불화를 환수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환수는 조계종과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선암사 등이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과 분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선 조계종은 1999년부터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해 도난 문화재에 대한 자료

를 축적했으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외국 경매 현황을 모니터링 해 경매 출품 사실을 파악해 왔다. 문화재청은 관련 자료를 비교해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선암사는 미국에서의 진영 이운(移運, 불상 등을 옮겨 모심)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했다.

이날 공개식과 더불어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 불교 문화재의 정보공유와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불교 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서의 대상을 국외 소재 불교 문화재까지 확대하고 협력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외 소재 불교 문화재의 현황과 반출경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도난 문화재로 확인되는 경우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진영은 정신문화를 중요시하는 불교의 소중한 성보"라며 "국외에 흩어진 많은 불교문화재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사찰 큰 어려움 '공양주 구하기'

어떻게 모집하고 교육하나
본지, 전국 사찰 표본조사

전국에서 공양주 교육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양주 구인이 사찰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본지는 지난 20일, 도심 대형 사찰, 포교당, 지방 교구본사 및 말사 등 16개 사찰을 선정해 공양주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양주 평균 급여가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주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율도 높게 나타났다. 공양주 채용 방법으로는 신도 등 지인 소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일수록 인력사무소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어렵게 공양주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예로 사찰을 물은 결과 "갑자기 공양주가 그만두거나 할 경우, 대체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게 공통된 답변이었다. 경북 안

동의 한 스님은 "공양주를 구하지 못해 한 달간 혼자 밥을 하고, 사찰 일을 보느라 애를 먹었다. 이후 공양주에게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며 "오신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해야 하는 사찰의 특성을 고려해 공양주에 대한 사찰음식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들은 "사찰에서 기거하며 공양주를 하려는 사람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개별 말사가 아니라, 교구본사나 종단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5년전 공양주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박경주 씨는 "공양주 문제는 날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될 것이다. 대안으로 이주여성이나 탈북여성을 공양주로 활용한다면 매우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며 "인력 모집과 사찰음식 교육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 관련 기사 3면
특별취재팀

"생명 구하는 일에 써주세요"

운문사 혜은스님, 아름다운 '희망'

혜은스님 손상좌 유승스님이 지난 20일 아름다운행 사부살을 찾아 4000만원을 건네며 노스님 이야기를 꺼냈다. 전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장 혜은스님(사진)은 300여일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6월 19일 세수 여든의 나이로 입적했다. 혜은스님은 "(장례 후) 만약 여유가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뜻있게 써 달라" 당부했고, 혜은스님 문도회는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지정 기탁했다.

혜은스님은 25년이 넘는 세월동안 병마와 싸웠다. 1989년 암이 처음 발병한 후 2년에 걸친 대장암 수술과 1번의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 기나긴 투병생활을 거치며 생명에 대한 애뜻함은 더욱 커졌다. 5~6년 전부터 망가진 장기 대신 안구라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난 6월 입적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연 닿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문도회는 스님의 뜻을 받들어 4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2000만원은 선원수좌복지회에, 1000만원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지정 기탁했다.

장례비는 전적으로 문도회와 운문사 측에서 부담했다. "조의금이니 회환은 받지 않겠다"는 스님의 유언에 따라 조의금도 회환도 받지 않았다. "조용히 한 생각 참구하다 회향하도록 해달라"던 스님 말에 따라 부고(訃告)도 내지 않았다. 추석하던 운문사가 아니라 동국대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것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이 이를 못내 아쉬워하며 조의금으로 5000만원을 내놨고 문도회 측은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비용 전부를 전했다. "꽃은 비용이 많이 드니 간단히 쓰고, 고인재는 하지 말고, 화장 후에 유골을 수습하지 말고 바다나 강물에 뿌려 달라. 만약 여유가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뜻있게 써 달라." 마지막 가는 길에도 못 생명의 안면을 기원했던 혜은스님이 남긴 말이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辭令

편집국
박인탁 命 취재2부장
업무국
나채형 命 관리부장

2015년 7월 22일자

불교신문사

"불자로서 오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중신회, 계율산림법회 봉행
21일부터 5일동안 조계사서

불자라면 누구나 오계를 수지하고 삼보에 귀의한다. 하지만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다보면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부처님 전의 굳은 서원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계율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신행활동을 이어갈 것을 발원하는 법석이 열렸다.

특히 종단의 대표적인 율사 스님들이 처음으로 '계율'을 주제로 한 법회를 열어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도 금강석 같은 굳은 신심과 수계의지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청년회가 주관한 '신행실천 계율산림법회'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계율산림법회는 조계종 등록 신도단체 구성원들의 계율실천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신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불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2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불자로서 지켜야 할 오계인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등을 주제로 각각 법문한다. 특히 법문은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스님이 21일 법상에 오르는데 이어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수진스님, 해인총림 해인사 율주 경성스님,



계율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신행실천 계율산림법회'가 지난 2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입재식을 갖고 5일 동안 진행됐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 지운스님,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스님이 연이어 오계를 설했다. 회향식인 25일에는 법문에 이어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스님이 전제사로서 신행단체 임원과 회원들에게 오계를 내린다.

송광사 율주 지현스님은 지난 21일 '불살생'을 주제로 한 첫 법회에서 삼귀의와 오계의 의미에 이어 살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현스님은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으며 생명을 죽이는 일은 미래의 나, 미래의 부처님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

다"면서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살생이 아닌 잇기 위한 방생,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대중은 발원문 낭독을 통해 "앞으로 저희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고 널리 베풀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의와 순결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신을 파괴하는 물질을 피하고 맑은 지혜를 기르겠습니다"라며 수계의지를 되새겼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밝은 내일을 키워가는 꿈
NH농협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